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오시마 나기사 감독과 재일동포

지난 칼럼에서 제주 출신 재일 동포 문제를 다룬 제주 출신 2, 3세들의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 다뤘다. 재일동포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룬 일본인 감독 중에는 오시마 나기사(1932-2013)가 독보적이다. 그가 만든 41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최소 5편 정도에서 재일 동포가 나오는데, 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교토 태생인 오시마 나기사가 자라면서 주변에서 보아온 재일 동포 동년배들의 모습이 큰 영향을 끼쳤다. <감자의 제국>(1976)에서 1930년대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베 사다라는 여성에 의한

남성 성기 절단 사건을 통해 페티쉬를 다뤘고, <전장의 크리스마스>(1983)에서는 동성애적 소재를 다루어서 우리에게도 보통 감독이 다루는 성적인 부분만 강하게 기억된다. 특히 시작 부분에 조선인 군속 가네모토가 네덜란드군 포로 드용과의 동성애 혐의로 합복자살을 강요당한다. 자살로 인해서 전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데이비드 보위가 출연하고, 수용소장역에는 역시 유명 작곡가인 류이치 사카모토가 출연해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는 연기를 펼치고 영화의 음악도 작곡했다. 오시마 나기사가 재일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부여했던 또 다른 영화는 <교사형 殺死刑>(1968)으로 강간 살해를 저지른 재일동포 소년의 기사에서 인물을 가져와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드러낸다. 영화는 일본의 교도소의 사형

집행건물을 보여주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면서 시작돼 동포 사형수 R에 대한 사형집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살아났지만, 기억을 잃은 R을 사형집행 전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교도소장, 의사, 검사, R 등의 논쟁을 통해서 사형제의 부조리한 측면을 다룬다. 다큐멘터리 <잊혀진 황군 The Forgotten Imperial Army>(1963)에선 일본군과 같이 싸웠으나 전후 경제부흥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일 동포 상이군인의 절망과 분노, 사당한 군인들의 유골 안치소 등을 다룬다. <윤복이의 일기 Yoonbok's Diary>(1965)는 이윤복의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만든 크리스 마르케르의 <황주로>와 비슷한 포토에세이이다. <돌아온 술주정뱅이>(1968)는

베트남 파병을 피하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 일본 해안가로 밀항한 육군 병장이종일과 마산공고 1학년 김화가 일본 젊은이의 웃을 흘려서 군복과 교복을 바꿔입었으므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인 포크 그룹 포크 크루세이더스는 영화 내내 북한 노래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때문인지 영화는 개봉 1주일 만에 상영 금지됐다. <일본촌가고>(1968)는 성에 굶주린 일본 젊은 남성과 그들이 부르는 외설스러운 노래를 다루면서 영화의 끝부분에서 일본 전황의 기원이 백제 왕자라고 주장하는 여대생은 남자 고3 학생들에게 유린당하고, 한복 입은 소녀 즉 위안부를 상징하는 여성이 이를 지켜본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지금 보더라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다.

사설

국회 최종 문턱에 다다른 제주4·3특별법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넘어섰다. 지금까지 4·3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4·3회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조치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최종 문턱에 이르렀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법사위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날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 열리는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

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그간 정치적 현안들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법사위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은 경우가 있어서다. 법사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다. 이제 4·3특별법 개정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배보상 근거 등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나왔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이번에 순조롭게 이뤄진 이유다.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70년 넘게 '통곡의 세월'을 살아온 4·3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는가.

열린마당

복지 패러다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라



강정인 서귀포시 동홍동 맞춤형복지팀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의 중점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종합상담장구 설치 및 운영이다. 시범지역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상담 장구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둔다. 두 번째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세 번째는 통합사례관리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관 공동사례관리를 활성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로 합

쳐 주민의 복지제감도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에서 추진중인 공공·민간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플랫폼)을 활용 및 연계해 상호협력증대에 있다. 2021년에는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대상자를 선정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동홍동의 경우 상반기에는 관내 주공아파트단지 중심의 만 70세 이상 노인가구,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뤄지며, 하반기에는 공적 급여 탈락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및 기타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돼 2021년까지 시행중인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은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돌봄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에 의의를 둔다. 이에 따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라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이뤄내 새로운 복지시대를 선도해나가길 기대해본다.

뉴스-in

자치경찰 경제회복 위한 시책 발굴 추진

교통·행사장 경비 지원 결정 ○...제주도 자치경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해 눈길. 자치경찰은 제주지역 내 기관·단체들이 지역 특산물 등 판매 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접수 장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행사장을 찾아 교통관리를 해 주고 행정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행사의 교통·행사장 경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찾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가겠다"고 다짐. 교대로기자 월동채소 수출활성화 지원 ○...가격하락과 판로난 등 이중고를 겪고있는 제주산 양배추의 러시아 첫 수출길에 오른 것과 관련 제주시가 22일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

이날 양배추 러시아 첫 수출에 따른 애월농협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방문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양배추 연합회와 농협 관계자에 고마움을 표시. 이어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월동채소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방출에 매진하는 한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원을 해나가겠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전방위적 국비 확보 주문 ○...김태업 서귀포시장이 22일 대면·비대면으로 시정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장급 관계자들에게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 시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및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받으며 부서별 3월 주요업무계획을 점검. 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과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국장 위주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백규탁기자

전국 최대 '온라인 사기'... 도민 경각심

전국 최대 규모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아 도민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온라인 사기'는 날이 갈수록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성에 인터넷 거래를 선호하는 시대 추이를 악용한 지능범죄다. 사기범들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온라인 거래장터에서 사기 행각을 상당기간 대담하게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만이 '예방'의 최상 대책임을 유념해야 할 때다. 제주지법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장터에서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2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했다. 주범인 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 등 19명에게 실형을, 10명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2014년부터 작년 1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피해자 5092명, 피해금액 약 49억

원에 이르는 대형 온라인 사기사건의 '말뚝'이다. 사기범들은 조직원 모집책과 판매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눴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헤쳐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령 매장'을 허위등록하거나 위조된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주부 등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시대 흐름상 언제든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 신원확보,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률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했다. 주범인 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 등 19명에게 실형을, 10명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2014년부터 작년 1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피해자 5092명, 피해금액 약 49억

부고 강지훈(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어머니 남평문씨 인순(향년 83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2일 00시 13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2월 23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4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천왕사 납골당 남 편 강대원 아들 강지훈 며느리 배연수 상훈 조영문 딸 강희경 사위 고대만 유경 강대준

부고 이성훈(사조종합유동)·지훈(자치경찰단) 아버지 고부이공 영수(모술포수산(동문시장)·향년 73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1일 19시 54분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2월 23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4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하귀능협장례식장 101호 분향실 ▶장 지: 대정읍 상모리 가족공동묘지 부 인 고춘금 아들 이성훈 지훈 며느리 김민선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을 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